

# 프랑스 : 기후위기와 노동환경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⑤ - 프랑스

이두형 (프랑스 루미에르 리옹2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

전 세계에서 대형 산불과 가뭄이 잇따르고 한편에서는 폭우와 홍수가 이어지며 많은 사람이 신음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극심해지는 폭염과 급격한 기상 변화 등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2023년 프랑스는 전년도에 이어 기록적인 더위를 보였다. 프랑스 기상청(Météo France)에 따르면 2023년 여름 평균 기온은 21.8℃로 1991~2020년 일반적 수준보다 1.4℃ 높았다.<sup>1)</sup> 이는 1900년 이후 네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역사상 가장 높았던 해는 2003년으로, 평균 온도가 24.5℃에 달했다. 이어 24.1℃였던 2022년이 뒤따랐고, 23.3℃를 기록한 2018가 세 번째로 높았다.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기록적인 더위가 잇따라 발생하였다. 이번 여름 평균 기온을 월별로 보아도 비교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6월 평균 기온은 평상시보다 2.6℃, 7월은 0.8℃, 8월은 0.9℃ 더 높았다.

프랑스 기상청에 따르면 2023년 여름에도 폭염기(canicule)가 연이었다.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 폭염기는 고온현상이 최소 3일 연속 이어지는 것으로 이 기간 동안 최저 기온이 21℃를 넘는 경우를 지칭한다.<sup>2)</sup> 2023년 7월 8일부터 11일까지 이어진 첫 폭염은 특히 프랑스 남동 지역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어 같은 해 8월 17일부터 24일까지 상대적으로 뒤늦게 나타난 폭염기는 프랑스 전역에서 관찰되었다. 특히 8월에 찾아온 폭염기간 동안 일부 프랑스 남부지역

1) Libération, "Vague de chaleur : l'été 2023 est le quatrième le plus chaud selon Météo France", 2023.9.4.

2) Météo France(2023), "Canicule, vague ou pic de chaleur ?", <https://meteofrance.com/> (2023.9.15).

에서는 며칠 동안 40℃가 넘는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

9월 들어서도 무더위는 가시지 않았다. 9월 9일 센느-생드니(Seine-Sanit-Denis)에서는 35.5℃, 낭트에서는 35.4℃ 등 일부 지역에서 상당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프랑스 기상청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는 역대 가장 높은 9월 기온을 기록했다. 또한 9월 첫 주 프랑스의 평균 온도는 25.1℃였는데 이 역시 기상관측 역사상 가장 높은 9월 첫 주 기온이라는 전문가의 설명이다.<sup>3)</sup>

이처럼 이상 고온현상이 이어지면서 노동환경에 단기간 그리고 장기간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우려를 넘어 실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가 노동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둘러 쌓고 벌어지는 논의와 이에 대한 대응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 ■ 기상 이변에 노출된 노동자들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공공정책 관련 프랑스 국무총리 자문 기구인 프랑스전략연구소(France Stratégie)에서 2023년 6월에 발표한 보고서는 프랑스 노동부 산하 조사연구통계지원국(DARES)의 「2017 노동자들의 직업적 위험 노출에 대한 의료감시(Surveillance médicale des expositions des salariés aux risques professionnels)」 보고서를 참조하여 2017년 당시 24℃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는 약 150만 명, 실외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는 36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DARES에서 2019년 진행한 「2019 노동환경 조사(Conditions de travail 2019)」를 인용하며 노동 중 열기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노동자 수는 970만 명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체 노동인구의 36%에 달한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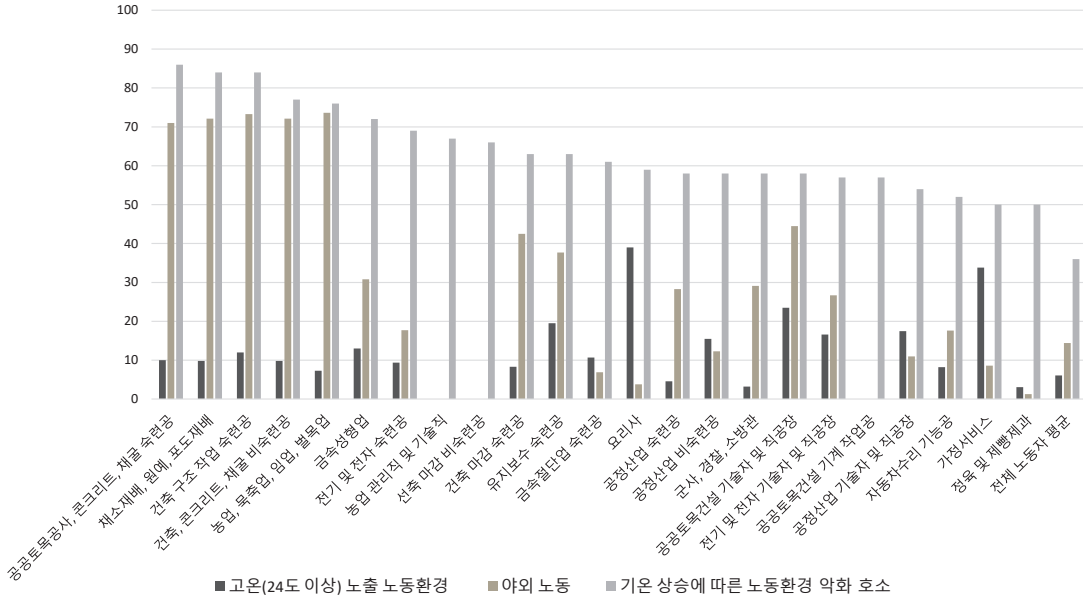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이에 노출된 노동자들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주로 야외에서 일을 하는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실제 공공토목건설과 콘크리트, 채굴업 숙련공업종에서는 86%가 기온 상승에 따른 노동환경의 악화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의 실외 노동

3) Franceinfo, “Climat : avec la canicule qui s’achève, la France a connu un débat de mois de septembre “historique””, 2023.9.10.

4) France stratégie(2023), “Le travail à l’épreuve du changement climatique”, <https://www.strategie.gouv.fr/> (2023.9.15).

[그림 1] 고온 환경에 노출된 상위 23개 업종

(단위 : %)



자료 : Franceinfo, “Canicule : cinq questions pour comprendre comment faire évoluer le droit du travail”, 2023.08.23. (재인용 : France stratégie(2023), “Le travail à l’épreuve du changement climatique”, <https://www.strategie.gouv.fr/>)

비중은 71%에 달했다. 이어 채소재배 및 원예, 포도재배 업종에서는 84%가 같은 어려움을 호소했고, 해당 업종에서 야외에서 일하는 경우는 72.1%에 달한다. 건축 구조 작업 숙련공 업종 또한 기온 상승에 따라 노동 작업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84%로 같았고, 이어 건축, 콘크리트, 채굴 비숙련공 업종이 77%로 그 뒤를 따랐다. 이들 직종에서 실외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70%를 넘었다. 해당 업종에서 실외 노동의 비중은 그 외 다른 직종과 비교해 적게는 약 26%, 많게는 약 70%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외 노동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에서도 기온 상승에 의한 노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전기 및 전자 숙련공 업종에서 야외 작업 비중은 17.7%에 그쳤지만, 기온이 상승하면서 노동여건이 악화되었다는 답변은 69%에 달했다. 또 실외 노동이 차지하는 부분이 3.8%밖에 되지 않는 요리사 업종에서도 기온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 59%로 집계됐다. 기온 상승에 따른 노동환경 악화 상위 23개 업종 내에서 야외에서 일하는 경우가 가장

낮은 가사서비스(1.3%) 업종에서도 50%가 기온 변화에 따른 노동환경 악화를 호소했다. 프랑스 노동자 전체에서 강한 열기로 인해 노동 작업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36%인 것과 비교하면 약 14%p 높게 나타났다.

이상 고온 현상은 노동환경 악화를 넘어 실제 위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프랑스 공중보건청(Santé publique France)은 2023년 7월 7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진 폭염기에 무더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오베르뉴론알프(Auvergne-Rhône-Alpes)와 그랑테스트 지역에서 총 2건 발생한 것으로 보고했다.<sup>5)</sup> 프랑스 공중보건청은 앞서 2022년에도 7월 중순 이어진 폭염기에 더위가 연관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 중 사망 사고가 총 4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sup>6)</sup> 또 2023년 9월 초에는 일주일 사이에 마른 지역에서 포도 수확을 하던 인부 네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9월 초 찾아온 고온의 햇볕과 무더위에 그대로 노출된 포도밭에서 일하면서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sup>7)</sup> 프랑스 공중보건청은 기후변화로 인해 더위가 건강에 미치는 위험이 전례가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 기후변화가 노동환경에 미칠 악영향 전망과 위기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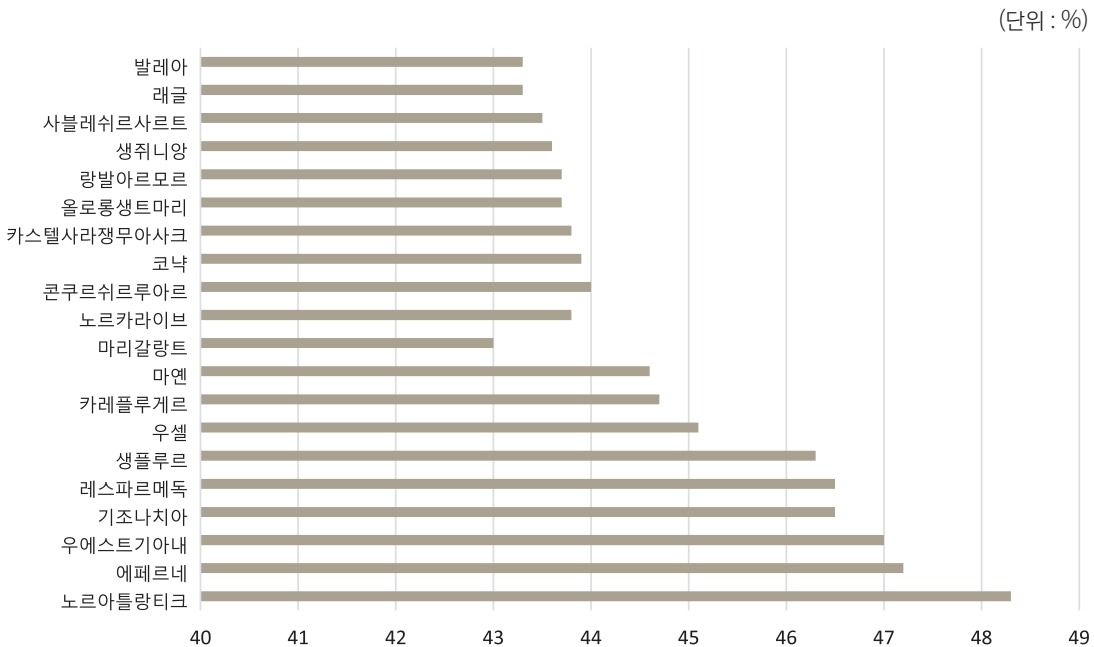
문제는 향후 이상 고온 현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프랑스전략연구소는 2021년부터 2050년까지 프랑스 본토를 기준으로 84%의 노동자가 평균 16일에서 26일 동안 비정상적으로 무더운 여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1976~2005년 기간과 비교해 4일에서 16일이 증가하는 것이다. 특히 30개 고용지역에서 눈에 띄는 비정상적인 무더위가 심화될 것으로 추정한다. 이들 지역의 노동자 수는 프랑스 전체 노동자 중 약 7%를 차지한다. 여기에는 마르세유가 속한 남부 해안지역인 프로방스알프코트다쥐르(Provence-Alpes-Côte d'Azur)와 리옹이 위치한 중남부 내륙산간지역 오베르뉴론알프, 툴루즈, 그리고 스페인과 인접한

5) Santé Publique(2023), “Canicule et santé : excès de mortalité. Point au 1er août 2023”, <https://www.santepubliquefrance.fr/> (2023.9.15).

6) Ouest-France, “Canicule. La récente vague de chaleur aurait provoqué quatre décès au travail en France”, 2022.7.28.

7) TF1, “Vendanges : quatre morts en Champagne, la chaleur mise en cause”, 2023.9.13.

[그림 2] 노동자가 고온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위 20개 지역



자료 : France stratégie(2023), “Le travail à l’épreuve du changement climatique”, <https://www.strategie.gouv.fr/> (2023.9.15).

남부지역 옥시타니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이상 고온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실제 이상 고온 현상이 노동현장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악영향 정도는 지역에 따른 기온 상승 추정과 맞아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지역에 따라 주요 산업의 분야가 다르고 또 직종에 따라 고온의 노동환경에 노출되는 정도도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기온 상승으로 노동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위 20개 지역은 상당한 야외 노동이 수반되는 농업 및 포도 재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으로, 해외 영토 과들루프와 마르티니크 등 해외 영토와 보르도가 있는 남서부 지역의 누벨아키텐(Nouvelle-Aquitaine), 낭트가 위치한 서부 지역의 페이드라루아르 등 일부 지역이 속한다. 또 제지업과 농산물 가공업, 화학업, 제약업 등 원자재 가공분야를 의미하는 공정산업(industries de process)이 발달한 북서부 지역에서도 이상 고온 현상에 따른 노동현장 악영향이 발견된다. 반면 비정상적인 기온 상승이 전망되는 상위 30개 지역임과 동시에 무더운 근무 환경에 노출되는 노동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위 20개 지역에 속한 곳은 두 군데에 불과했다. 이는 비정상적인 기온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무더위에 노출될 직업군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온 상승으로 대변되는 기후위기가 현실 문제로 다가오면서 노동현장에서도 이에 대한 위기 의식이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 여론조사기관 엘라브(Elabe)의 조사를 바탕으로 프랑스 전국상공업고용조합(UNEDIC)이 지난 2023년 4월 4일 발간한 「위기와 친환경 전환: 노동에 미칠 영향들은?」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응답자는 85%에 달했다.<sup>8)</sup> 구체적으로 64%는 일상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지만 현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21%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며 당장은 물론 자녀계획 등 중장기적인 계획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환경 상황에 대해 특별히 걱정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14%에 그친 것을 고려하면 기후위기에 대한 위기감을 일정 수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 위기에 따른 친환경 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71%는 본인이 속한 회사 또는 조직이 친환경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장기적으로 속한 조직이 머물 의향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친환경 전환에 적극 나서는 조직에 지원할 의향이 있는 질문에 62%가 “그렇다”라고 답하며 친환경 의제가 기업과 조직의 매력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 ■ 기후위기 대응 움직임

기후위기, 특히 이상 고온 현상이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프랑스 내에서도 이에 대한 움직임과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고온 노동환경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일반적인 수준에서 몇 가지 방안을 의무화했다.<sup>9)</sup> 밀폐된 작업 공간에서는 공기를 순환시키고, 차가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더위와 관련된 환경 위험을 고려하며 “위험평가 단일문서(document

8) Unédic(2023), “Le travail en transitions”, <https://www.unedic.org/> (2023.9.16).

9) 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souveraineté industrielle et numérique(2023), “Canicule : quelles sont les obligations de l'employeur”, <https://www.economie.gouv.fr/> (2023.9.16).

unique d'évaluation des risques)”를 작성하여 상황에 맞춰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실외 노동자를 위해서는 기후 상황에 따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폭염기에는 신선한 식수를 구비해야 한다. 개인 안전장비 장착은 물론 과도한 노동시간에 노출되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적절히 노동시간을 분배해야 한다. 프랑스 기상청에 의해 폭염기 경보가 발동된 경우, 노동시간 조정과 노동 중단 등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내에서도 급격한 기온 상승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각 국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sup>10)</sup> 이탈리아의 경우 폭염기에는 부분실업(chômage partiel)이 가능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즉 무더위로 인해 일시적인 노동 중단이 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 기온이 35℃ 이상일 경우 기업은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노동자의 임금 손실은 국가 사회보장제도로 보전한다. 다만 모든 기업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건설업과 농업 등 강한 햇볕에 노출되는 직종에 한해 가능하다. 스페인에서는 2023년 5월부터 무더위에 야외 노동을 하는 경우에 대한 특별 규정을 도입했다. 스페인기상청(AEMET)에서 고온으로 인한 주의 또는 경보를 발동한 경우, 해당 지역 기업들은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자를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한다. 또한 여름 시기에는 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연속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 이는 노동 중간에 휴식을 취하지 않는 것으로 하루 중 가장 기온이 높은 오후 3시 이전에 일을 끝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로 스페인 남부지역에서 이뤄지며 지난 2018년 세비야와 안달루시아에서는 6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으로 노동시간이 조정된 바 있다. 그 외에도 사이프러스에서는 온도에 비례해 휴식시간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35℃ 이상이면 습도가 38%~50%인 경우 고된 노동을 하는 작업자는 매 시간 휴식과 근무를 30분씩 번갈아 해야 한다.

프랑스에서도 기후변화로 악화되는 노동환경을 고려해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sup>11)</sup> 현재 프랑스 노동법은 일정 온도를 기준으로 무더위에 노출된 노동자가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2023년 초여름부터 녹색당(EELV)은 노동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발동할 수 있는 기준을 기온 33℃로 설정하는 것을 노

10) BFM TV, “Travail pendant la canicule : ces mesures de pays européens dont la France pourrait s'inspirer”, 2023.8.22.

11) Franceinfo, “Canicule : cinq questions pour comprendre comment faire évoluer le droit du travail”, 2023.8.23.



동법(Code du travail)에 삽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노조 등에서는 33℃ 미만인 경우에도 건강상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고 기온 33℃만 적용하는 것은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반박을 제기한다.

보다 세분화된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굴중하지않는프랑스당(LFI)은 지난 2023년 7월 말 프랑스 기상청의 폭염기 경고 시스템을 바탕으로 노동시간 조정 방안을 담은 법률안을 냈다. 이에 따르면 폭염기 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작업 중단을 허용하고, 주의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노동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실외 온도 28℃와 실내 온도 30℃를 기준으로 임금 손실 없이 작업 두 시간당 10분, 기온이 33℃를 넘는 경우에는 20분의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프랑스 정부 차원의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sup>12)</sup> 예를 들어 노동현장 위험을 예방하고 산업 보건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지난 2004년부터 5년 단위로 진행되는 “국가 노동보건 계획(Plans santé au travail)”이 2021년부터 4회차에 접어들어 시행 중이다.<sup>13)</sup> 이때 처음으로 기후변화가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으며, 2022년에는 무더위 시기에 노동자가 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또한 5년을 주기로 시행하며 2020년부터 4회차가 시작된 “국가 환경보건 계획(Plan national santé-environnement)”과 연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보건정책 관련 범정부 프로젝트였던 “국가 보건 전략(Stratégie nationale de santé)”<sup>14)</sup>에서도 관련 내용을 다루기도 했다. 다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진 제2차 “기후변화 적응 국가계획(Plan national d’adaptation au changement climatique)”과 마찬가지로 산업보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은 물론 정책적 시너지를 발휘할 방안을 모색하지 않았다고 프랑스전략연구소는 지적한다.

이에 프랑스전략연구소는 보다 세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살펴봤듯 지역 상황에 따라 기후변화, 특히 기온 상승이 노동환경에 유발하는 영향 정도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여기에는 지역의 지리적 특성은 물론 경제환경, 그리고 노동자의 직군 등에 따라

12) France stratégie(2023), “Le travail à l’épreuve du changement climatique”, <https://www.strategie.gouv.fr/> (2023.9.15).

13) Ministère du travail, du plein emploi et de l’insertion(2022), “Plan santé au travail(PST)”, <https://travail-emploi.gouv.fr/> (2023.9.16).

14) Ministère de la santé et de la prévention(2020), “La stratégie nationale de santé 2018-2022”, <https://sante.gouv.fr> (2023.9.16).



그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의한 노동환경 악영향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접근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와 기업, 노조, 시민 등의 여러 행위자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기후위기로 인한 노동환경의 악화는 점점 더 현실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기온 상승으로 대변되는 기후변화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일시적 위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른다. 이에 당장의 위기에 대응하고 보다 장기적으로 여기에 적응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점점 강하게 일고 있다. 특정 지역과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의 위기의식과 대응은 한국에도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KLI**